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2020. 4. 22.(수), 14:00
2. 장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1	차미희*, 박인휘**, 정혜중, 박영미, 정연화, 유제욱, 오희아, 김우정, 남상택, 이정화, 송희준	신태섭(간사)
불참인원	1	장남수	

* 의장 **부의장

4. 안건

- 제1호의안: 2019학년도 결산안 자문
- 제2호의안: 대학평의원회 관련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

5. 개회선언

- 가. 의장은 제6기 대학평의원회 여덟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대학평의원회 운영세칙 제2조 ‘대학평의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과 12월에 개최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가 4월 정기회임을 안내하다.
- 나. 의장은 장남수 평의원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전체 평의원 12명 중 11명 참석으로 과반이 출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한 후 개회를 선언하다.
- 다. 이어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 회의록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고하도록 안내하다.

6. 안건 자문 및 논의

가. 자문사항

제1호의안: 2019학년도 결산안 자문

- (1) 의장은 2019학년도 결산안 자문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진행 순서에 따라 의료원 및 본교 기획처에서 배석하여 안건을 설명할 예정임을 안내하다.

(배석자: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이대목동병원 재무팀장, 이대서울병원 재무팀장)

- (2) 의장은 의료원 배석자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고, 이대목동병원 재무팀장 및 이대서울병원 재무팀장은 이대목동병원, 이대서울병원, 이화의료원 순서로 2019학년도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3) 송희준 평의원은 이대서울병원의 경우 2019학년도와 2018학년도 진료기간의 차이로 시계열 비교는 어려우므로 베드 당 수익률 및 계획 대비 실적을 질의하다.
- (4)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2019학년도 실적은 100병상 당 약 98억 원으로 2018학년도 78억 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하고, 이는 예산 대비 120%를 달성한 것으로 수익률 개선을 통해 부채비율이 줄어든 것임을 설명하다. 이대서울병원 개원 시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계획하였으나 초기 164병상만 오픈되었고, 2019년 중반이 되어서야 488병상을 오픈하였음을 설명하고, 2020년 현재는 이대목동병원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고 말하다.
- (5) 송희준 평의원은 재작년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빨리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실제적으로 잘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질의하다.
- (6)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건당 진료비가 70만 원 수준에서 최근 98만 원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중증질환 진료 비율이 초반 12%에서 3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설명하며 이는 이화의료원이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답하다. 지난 4월 19일 이대서울병원은 653병상을 오픈하였고, 현재 병상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다. 단,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17%까지 실적이 떨어졌었으나 3개월 만에 회복을 하였었고, 이번 2월에는 예산대비 목표 달성, 3월에는 이대목동병원 11~12% 감소, 이대서울병원은 5%만 실적이 감소하였다고 설명하다. 이어 4월 현재는 코로나19 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료원이 도약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다.
- (7) 박인휘 평의원은 의료원의 부채가 1,500억 원 발생하였고, 2019년 결산 기준 총 7,000억 원의 부채가 확인된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해소 전망에 대해 질의하다.
- (8) 이대목동병원 재무팀장은 단기 상황이 아닌 25년으로 상환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하고, 2020년부터 이대서울병원의 원금 상황이 시작된다고 말하다.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이자율이 하락하여 이자부담이 10~20억 원 절감되었으며 장기 계획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다.
- (9)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경영 측면으로는 두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인력 및 공간 등 운영 효율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다. 예를 들어 양 병원의 종합검진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이대목동병원이 인건비 23억 원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대서울병원은 국검과 종검을 통합, 활성화하여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이

와 같이 효율적으로 인건비는 최소화하고, 경영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하다.

- (10) 박인휘 평의원은 이대서울병원의 입원수입과 외래수입의 차이가 큰 것을 지적하고, 병원의 전략적 선택인지 질의하다.
- (11)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전략적 선택은 아니며, 입원수입의 경우 응급실을 통한 입원 등으로 빨리 채워질 수 있으나 외래는 지역 개인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답하다.
- (12) 박인휘 평의원은 이대목동병원의 인원 이동으로 인건비가 절감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된 다른 항목이 있는지 질의하다.
- (13) 이대목동병원 재무팀장은 관리운영비-복리후생비(직원에게 대한 4대보험 부담금 등)가 감소하였다고 답하고, 수수료 및 광고선전비도 이대서울병원과의 분담을 통해 절감되었다고 설명하다.
- (14) 정혜중 평의원은 이화의료원의 의료비용이 전년 대비 1,500억 원 증가한 것을 볼 때 2020년 병상이 증설되면 인건비가 증가되어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하고 인력과 기계 등이 충분한지, 충원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15)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2020년 하반기 792병상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병상 증설 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기계는 리스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증설 예정이고, 현재 의료진은 792병상 기준 80% 충원된 상황이므로 수입 대비 비용은 오히려 절감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하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4~5월 수입구조 확인 후 결정 예정이며, 10월 중순 경 병상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다.
- (16) 정혜중 평의원은 이러한 경비 지출과 수익 구조가 병원 개원 시 예측한 수준인 것인지, 적자폭이 큰 것인지를 질의하다.
- (17)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통상적인 신생 대학병원들의 구조를 고려할 때 예상보다는 적자폭이 적다고 답하다. 이어 현재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선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하겠다고 전하다.
- (18) 의장은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의료원의 2019학년도 결산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배석자: 기획처장, 기획처부처장(예산), 예산팀장, 회계팀장)

- (19) 의장은 학교 배석자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처장은 이화여자대학교의 2019학년도 결산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다.
- (20) 오희아 평의원은 특정목적기금이 임의기금으로 이관된 것을 확인하고, 교원인건비가 감

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기금에서 교원 인건비를 지원한 사유를 질의하다.

- (21) 예산팀장은 당초 예산 대비 교원인건비 총액이 감소한 것은 맞으며, 목적 사업을 위해 기금을 인출하였다고 답하다. 전체 지출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특정목적기금 인출 감소에 영향을 주었음을 설명하다.
- (22) 오히아 평의원은 학생처와 면담 진행 당시 학교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기금에서 등록금을 환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하며, 특정목적기금을 임의기금으로 이관한 기준에 대해 질의하다. 이어 원금보존기금 중 장학기금을 등록금 환원을 위해 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요청하다.
- (23) 예산팀장은 기본적으로 특정목적기금은 학교발전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해당 건은 학교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인출 편성하였음을 답하다. 이어 기금 사용에 대한 세대간의 공평성을 위해 원금보존기금과 임의기금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고, 장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임의기금 장학금으로 이관하여 이미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또한 장학기금의 목적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세대간 공평성을 위해 사용 방법 및 시점에 대한 결정은 충분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 (24) 오히아 평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 설문조사 결과 100%에 가까운 학생들이 등록금 환원을 요구하고 있고,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를 위한 서명을 하였다고 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세대간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하다.
- (25) 기획처장은 등록금 환원 요구를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다. 본교는 등록금 의존률이 약 50%로 등록금 외 더 많은 재원을 학생 교육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사태로 인해 등록금 외 기타 수입이 감소하여 2020년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결산은 내년에 반영될 것이라고 답하다. 학생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현재 코로나 성금 모금 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 재원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하다.
- (26) 오히아 평의원은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을 예산팀에 요구하였고, 등록금 환원과 관련하여 2월 중순부터 논의 요청을 하였으나 추경 예산 편성에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하며, 현재 학교에서 등록금 환원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다.
- (27) 기획처장은 등록금 환원의 측면이 아니라고 답하다. 현재 등록금이 남는 상황이 아니며,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학교가 모금이나 기금을 통해 지원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하다.
- (28) 오히아 평의원은 2020년에 고정자산매각수입으로 잔금 11억을 지급 받을 계획이고, 행

사 감소로 관리운영비 및 기타학생경비의 실험실습비도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하다.

- (29) 예산팀장은 자금이 부족하여 등록금회계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결산의 등록금회계 기타 이월금은 1만 원 미만이라고 말한다. 본교는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목적사업을 모두 할 수 없기에 학교 발전 사업을 위해 특정목적기금을 인출하고 있으며, 목적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자금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금의 인출이 감소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이어 토지나 건물의 매각대금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건축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답하다.
- (30) 박인휘 평의원은 회의 안건인 2019학년도 결산안 자문에 집중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 시설용역비가 자체 항목 대비 3년 사이 50억 원이 증가한 이유를 묻고, 유형보존자산과 관련하여 2018년 신축공사가 많이 종료되어 2019년에 금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몇 년도가 더 통상적인 수준인 것인지를 질의하다.
- (31) 예산팀장은 시설용역비에 건축, 미화, 시설 관리 등의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협상에 따른 임금인상율에 따라 매년 용역비가 결정됨을 말한다. 또한 학교 건축은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이사회 사전 승인을 통해 진행된다고 말하고, 2018년은 연구협력관 등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이화 오뚜기어린이집이 마무리가 되면 학관 리모델링 공사한 건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답하다.
- (32) 박인휘 평의원은 기금 적립 지출 부분에서 예산대비 약 50억 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질의하다.
- (33) 예산팀장은 원금보존기금의 사용을 위해서는 원금보존기금에서 인출하여 임의기금으로 적립 후 재 인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적립과 인출 항목에 금액이 한번 씩 더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예산대비 적립차액 55억 원에서 기금간이관 차액 47억 원을 제하면 예산 대비 약 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토지매각대금 미반영을 감안하면 예산대비 큰 차이가 없음을 설명한다.
- (34) 박인휘 평의원은 기금간이관 항목은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하다.
- (35) 예산팀장은 기금간이관 차액은 원금보존기금 인출 변동에 대한 차액으로, 예산대비 원금보존기금 인출이 감소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해당 사업의 집행액이 확정되어야 특정목적기금 인출액이 확정되므로 사업의 규모로 볼 때 결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움이 있음을 답하다.
- (36) 박인휘 평의원은 이전년도 결산과 비교했을 때 이번 결산안 분석의 가장 큰 특징과 변화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 (37) 예산팀장은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 입학금 순차적 폐지 등으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기부금 및 전입금도 감소 추세에 있기에 목적 사업 집행을 위해 원금보존기금까지 인출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다.

- (38) 오히려 평의원은 학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3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질의하다.
- (39) 예산팀장은 2019년은 학관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설계비, 진단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답하다.
- (40) 의장은 2020년 예산에 대한 자문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하다.
- (41) 예산팀장은 2020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다 끝난 상태이며 추경예산은 10월 초부터 개별 부서 예산편성 및 면담을 시작하여 11월 확정 등록금 수입을 반영하고, 12월 중 초안을 작성하여 12월 말에 대학평의회 회 자문을 진행한 후, 2021.1월에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자문을 거칠 예정이라고 답하다.
- (42) 오히려 평의원은 임의기금에서 교원인건비를 지출한 사유를 질의하다.
- (43) 예산팀장은 특정목적기금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다시 설명하고, 교원인건비는 학교 교육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의 유지를 위하여 목적 기금을 인출 편성하였다고 답하다.
- (44) 정연화 평의원은 기존 교원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지원이 된 것인지, 의과대학 등 인력충원에 따라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였던 것인지를 질의하다.
- (45) 기획처부처장(예산)은 학교 중장기적 발전계획 및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 인력을 신규 확충하고 있으며, 확충 후 유지를 위한 인건비도 포함된다고 답하다. 기금으로는 경상비를 지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이번 년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오랜 논의와 엄격한 프로세스를 거쳐 원금보존기금 사용을 결정하였음을 설명하다. 등록금만으로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금 보존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현재 기금 이자를 통해 150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금이 줄어들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혜택이 줄어들어 가는 것임을 알리다. 이어 기금을 모으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기금이 감소되는 폭을 완화시키면서 발전계획을 빈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하다. 학생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요청한 것은 잘 알고 있으나 학교 프로세스를 이해해 줄 것을 부탁하다.
- (46) 오히려 평의원은 학교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를 질의하다.
- (47) 기획처장은 교육법상 학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산단 전입금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수교원 확보, 대학원 활성화, 대형 연구과제 수주 등이 필요하다고 답하다. 또한 기부금 모금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전하다.
- (48) 오히려 평의원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원 요구를 전달하고, 본교의 적립금이 높은 수준인 만큼 장학기금을 등록금 환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다.

- (49) 기획처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전하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상황 변화에 따라 국가의 방침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학교가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현재 등록금 환원의 측면이 아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특별장학금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이어 등록금 책정 및 환원은 교육부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학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다.
- (50) 오희아 평의원은 재난상황에 대해 한 달 동안 수업이 불가할 경우 등록금을 환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교육부에서 등록금 환원에 대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대학평의회가 대학의 주요사안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인 만큼 등록금 환원에 대해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51) 유제욱 평의원은 학생처와의 면담에서도 전달한 바와 같이 학교는 학생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기획처장님께서도 설명해주신 대로 이는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므로 교육부, 대교협의 입장이 정리되면 학교가 지원안을 마련하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최종적으로 지원책을 결정하게 되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다. 총학생회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오늘 대학평의회는 결산안을 자문하는 자리이므로 등록금 환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다.
- (52)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추가 의견 또는 질문이 있는지 묻고 2019학년도 결산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나. 논의사항

□ 제2호의안: 대학평의회 관련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

- (1) 의장은 오희아 평의원이 상정 요청한 대학평의회 관련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요구안은 지난 2020.3.31. 대학평의회 회의에서 오희아 평의원이 제출했던 요구안과 동일한 내용임을 안내하다.
- (2) 오희아 평의원은 안건 설명에 앞서 2020 등록금 환원에 대한 건을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에 추가하여 회의 전날 안건 상정 요청 메일을 다시 송부하였다고 말하고, 그 부분도 포함하여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다. 이어 2020 추경예산안 관련 안건 상정 요청에 대한 전체 평의원 의견 수렴 결과가 '부'로 결정이 되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질의하다.
- (3) 의장은 대학평의회는 예결산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이므로 절차상의 문제로 아직 편성

되지 않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없음을 설명하다.

- (4) 오희아 평의원은 지난 2월 이미 예산팀에 2020 추경예산안 편성과 등록금 환원에 대한 요구를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학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전하다. 대학평의회가 대학의 주요 사안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인 만큼 이 자리에서 등록금 환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회의 이후 평의원들이 소속된 각 구성단위별 회의체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5) 박영미 평의원은 예결산에 대해 대학평의회는 자문 기구이므로 예산안이 나오고 자문 요청이 오면 대학평의회 회의를 통해 자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이번 회의는 상정된 안건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다. 이어 등록금 환원 요구에 대해 기획처에서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대학평의회는 해당 건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말하다.
- (6) 오희아 평의원은 2020 추경예산안 안건 상정 요청에 대해 단지 절차상의 문제로 '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질의하고, 구성단위별 각 회의체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있는지 묻다.
- (7) 박인휘 평의원은 대학평의회 역할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아젠다를 세팅하는 것이 아닌 안건이 있을 때 심의 및 자문을 하는 것이므로 아젠다가 만들어지면 해당 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다.
- (8) 정연화 평의원은 각 구성원의 대표로 대학평의회 자리에 나와 있는 만큼 각 구성단위별 회의에서 기회가 있으면 해당 건에 대해 언급할 수는 있겠으나 학교의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비상사태에서도 절차와 권한, 기능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다.
- (9) 송희준 평의원은 각 조직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대학평의회 이름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정해진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을 제안하다.
- (10) 오희아 평의원은 등록금 환원에 관한 건을 회의 전날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에 추가하여 메일을 송부하였으므로 안건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
- (11) 의장은 오희아 평의원이 처음 송부한 안건 상정 요청에 대해 전체 평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록금 환원 관련 2020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은 안건으로 상정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이미 전달한 바 있다고 말하고, 더불어 대학평의회 운영세칙에 따라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은 회의 7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함을 안내하다.
- (12) 오희아 평의원은 추경예산안이 아닌 등록금 환원에 대해 구성단위별 각 회의체에서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싶었다고 말하다.
- (13) 유제욱 평의원은 등록금 환원에 대한 건은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해당 건에 대한 각 구성단위별 회의체의 의견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을 전달하다.

- (14) 박영미 평의원은 각 구성단위별 회의체의 안건은 각 회의체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인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다.
- (15) 오희아 평의원은 각 구성단위별 회의체에서 대학평의원회 진행 보고를 할 때 학생 평의원이 등록금 환원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각 회의체에서 논의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다.
- (16) 의장은 안건으로 상정된 대학평의원회 관련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①대학평의원회 학생의원 수 확대, ②모든 구성원 참관 및 발언 보장, ③전년도 모든 회의록 지속적 게시, ④투명한 대학평의원회를 위한 속기록 작성 및 게시)을 설명하다. 요구안 중 ③전년도 모든 회의록 지속적 게시와 관련하여 기획처에서 준비한 자료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본교는 회의록 공개 의무화 시점인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회의록을 게시하고 있음을 전달하다.
- (17) 오희아 평의원은 2018년 이전 회의록에 대해서 열람 요청 시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다.
- (18) 기획팀은 전 회의록 열람 가능 여부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설명하고, 의결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재적평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하다.
- (19) 의장은 전 회의록 열람 가능 여부 대해서는 바로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다.
- (20) 송희준 평의원은 요구안 각각에 대해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결을 하려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기획처 및 학생 평의원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다.
- (21) 오희아 평의원은 요구안이 사전에 전체 평의원에게 전달되었으므로 관련된 규정 및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이 자리에서는 의결을 했어야 한다는 유감의 뜻을 전하다.
- (22) 이정화 평의원은 전년도부터 동일한 요구안에 대해 대학평의원회에서 몇 차례 검토를 하였고, ①대학평의원회 학생의원 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각 대학별 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말하다.
- (23) 오희아 평의원은 보다 민주적인 대학평의원회 운영을 위해서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하다.
- (24) 정연화 평의원은 학생 평의원이 총학생회장 1명이었으나 개선 논의를 거쳐 학생 평의원 수가 2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2019년에도 학생의원 수 확대 요구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안에 대한 제시는 없었으며 타 대학과의 현황 비교 자료를 통해 본교 학생 평의원 비율이 낮지 않다는 판단을 했었음을 알리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확대 인원을 구체화하여 요구안을 다시 상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전달하다. 또한 ②, ③, ④번 요구안도 개선 논의 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하였던 부분이나

학생이 아닌 다른 구성단위는 해당 요구가 있지 않아 허용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한다.

- (26) 박영미 평의원은 ②, ④번에 대한 교수평의회 논의 결과를 전달하다. 참관 및 참관인 발언 허용 요구는 소속 단위 대표의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을 전하다. 이어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체 평의원이 회람한 후 추가 또는 수정 요청을 할 수 있고, 평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회의록이 게시되는 것이므로 속기록을 별도로 게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전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평의원이 소속 회의체에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27) 오희아 평의원은 각 구성단위의 대표로 참석하였으므로 굳이 구성원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 자리에서 판단 및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달하다. 이어 모든 구성원 참관 및 발언 보장 요구는 매 회의마다 참관 및 발언을 허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관인들이 발언 신청을 했을 시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임을 밝히다. 또한 속기록을 작성하고 게시하여야 회의체에 없는 구성원들이 대학평의회에서 어떤 논의를 진행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하였다고 말한다.
- (28) 유제욱 평의원은 현재 안건 제출 양식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양식 표준화를 통해 주문사항, 제안설명 등을 명확하게 작성, 제출하여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이어 동일 회기(임기 2년) 내에 의결된 안건은 다시 상정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29) 송희준 평의원은 유제욱 평의원의 제안에 동의 의견을 표하고, 안건 제출 시 표준화된 양식,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신규조문 대비표, 명확한 안건 제출 사유 및 근거 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안건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전하다.
- (30) 의장은 기획처에 안건 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이어 오희아 평의원에게 양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안건을 다시 상정 요청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제안하다.
- (31) 오희아 평의원은 안건 상정이 된 당일에 서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다.
- (32) 정혜중 평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 절차를 거치겠다는 의장의 의지가 있는 만큼 형식을 갖춰 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다.
- (33) 오희아 평의원은 같은 회기에 동일 안건 상정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의장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34) 유제욱 평의원은 앞의 명패에 적힌 바와 같이 본인은 학생처 부처장 직함이 아닌 직원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직원 대표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므로 학생회 의견에

의도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고, 평의원으로서 학교 전체의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의견을 내는 것임을 설명하다. 제출 양식 마련에 관해서는 이번에 처음 제안한 것이 아니며 이전에 이미 전임 의장님과 간사에게 의견을 전달한 바 있음을 밝히다. 이어 차기 회의에서는 안건 제출 시 발의자가 주문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안 설명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며, 기획처에서는 평의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다른 대학 자료 및 회의의 일반 원칙 등의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다.

- (35) 의장은 평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안건 제출 서식에 따라 4가지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송부해 주기를 요청하고, 차기 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다.
- (36) 오희아 평의원은 차기회의 일정을 질의하고, 의장은 5월말 개최 예정이라고 답하다.
- (37) 남상택 평의원은 전 회의록 공개 요구와 관련하여 당시 평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같은 회기 내에 동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한 가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다.
- (38) 송희준 평의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다고 말하고,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다.
- (39) 오희아 평의원은 차기 회의에서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하고, 의장은 순서를 확답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논의할 것이라고 답하다.
- (40) 의장은 기획처에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과 관련하여 전 회의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어왔는지 정리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전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자료 보완과 각 구성단위별 의견수렴을 거쳐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자문 종료를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0년 4월 22일

의 장 차 미 희

차기희 